地理學, 第29號, pp. 20-36, 1984年 6月 30日

京城府의 民族別 居住地 分離에 관한 硏究

—1935年을 中心으로—

李 惠 恩*

≪目 次≫

1. 序 論
(1) 硏究目的
(2) 硏究方法
2. 1935年의 서울
(1) 時代的 背景
(2) 市內 交通體系
3. 人口 分布와 居住地分化
(1) 人口構成
(2) 民族別 居住地分化
(3) 民族別 居住地 集中現象
(4) 民族別 居住地 分離現象
4. 結 論

1. 序 論

(1) 硏究目的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首都인 서울에 대한 硏究는 各 分野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서울에 관한 硏究는 대부분 最近의 서울,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서울을 主題로 하였다. 과거의 서울, 특히 1945년 해방이전의 서울에 대한 硏究는 극히 적었다. 1945년 이전의 서울에 관한 硏究는 舊韓末의 서울을 主題로 한 것이 있었으며[1], 대부분은 서울에 관한 硏究에서 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것이었다.[2]

우리는 대체로 日帝時代의 서울(京城)을 경험에 의거하여 묘사해 왔었다. 그 時代에 사셨던 분들이 아직 生存해 계시어 當時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日帝時代의 서울에 관한 硏究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日帝時代의 서울을 복원하는 첫단계로 1935년의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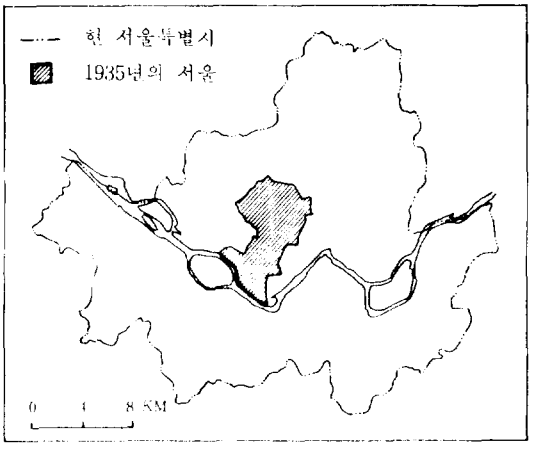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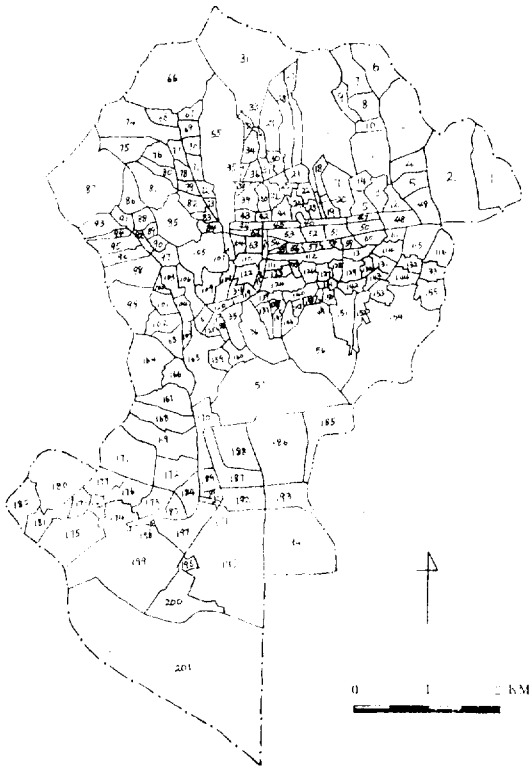
그림 1 硏究地域

1935년은 서울이 都市로서 건립된 이후 가장 적은 면적을 지녔던 12년간의 마지막 해이었다. 또한 日本이 1910년 合併을 단행한 이후 25년이

*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敎育科 助敎授(Ph.D.)

1) 元學喜, 1978, "舊韓末 서울의 居住空間形態," 地理學叢, 제 6 호,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pp. 25-32.

2) Griffin, Roy W., 1962, Seoul, Korea: A Study of the Sequence of Settlement of an Oriental Urban Reg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姜大玄 1971, "大都市郊外地域의 都市化過程과 類型의 硏究", 地理學, 제 6 호, pp. 25-49; _____, 1969, 서울의 都市化에 依한 地域構造의 變化에 關한 硏究, 교학사; 李淑姙, 1980, "人口現象으로 본 서울 都市化 硏究," 論叢, 제1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 135-154; Lee, Ki-Suk, 1977, A Social Geography of Greater Seoul,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Minnesota.



1. 崇仁洞
2. 昌信洞
3. 東崇洞
4. 梨花洞
5. 忠信洞
6. 惠化洞
7. 崇1洞(明倫町 1丁目)
8. 崇2洞(明倫町 2丁目)
9. 崇3洞(明倫町 3丁目)
10. 崇4洞(明倫町 4丁目)
11. 蓮建洞
12. 孝悌洞
13. 蓮池洞
14. 苑南洞
15. 仁義洞
16. 臥龍洞
17. 蕪井洞
18. 勸農洞
19. 鳳翼洞
20. 授恩洞
21. 雲泥洞
22. 益善洞
23. 敎義洞
24. 樂園洞
25. 慶雲洞
26. 覓勳洞
27. 苑西洞
28. 桂 洞
29. 嘉會洞
30. 齋 洞
31. 三淸洞
32. 八判洞
33. 花 洞
34. 昭格洞
35. 諫 洞
36. 松峴洞
37. 安國洞
38. 中學洞
39. 壽松洞
40. 堅志洞
41. 仁寺洞
42. 公平洞
43. 淸進洞
44. 鍾路 1丁目
45. 鍾路 2丁目
46. 鍾路 3丁目
47. 鍾路 4丁目
48. 鍾路 5丁目
49. 鍾路 6丁目
50. 禮知洞
51. 長沙洞
52. 觀水洞
53. 貫鐵洞
54. 三角町
55. 水下町
56. 長橋町
57. 水標町
58. 笠井町
59. 林 町
60. 舟橋町
61. 芳山町
62. 瑞麟町
63. 茶屋町
64. 武橋町
65. 光化門通
66. 淸雲洞
67. 宮井洞
68. 新橋洞
69. 孝子洞
70. 昌成洞
71. 通義洞
72. 積善洞
73. 都染洞
74. 玉仁洞
75. 樓上洞
76. 樓下洞
77. 通仁洞
78. 體府洞
79. 內資洞
80. 弼雲洞
81. 社稷洞
82. 需昌洞(內需洞)
83. 唐珠洞
84. 西大門町 1丁目
85. 西大門町 2丁目
86. 杏村洞
87. 峴底洞
88. 紅把洞
89. 松目洞
90. 平 洞
91. 橋北洞
92. 橋南洞
93. 館 洞
94. 玉川洞
95. 天然洞
96. 冷泉洞
97. 竹添町 1丁目
98. 竹添町 2丁目
99. 竹添町 3丁目
100. 渼芹洞
101. 蛤 洞
102. 中林洞
103. 義州通 1丁目
104. 義州通 2丁目
105. 貞 洞
106. 和泉町
107. 太平通 1丁目
108. 太平通 2丁目
109. 西小門町
110. 黃金町 1丁目
111. 黃金町 2丁目
112. 黃金町 3丁目
113. 黃金町 4丁目
114. 黃金町 5丁目
115. 黃金町 6丁目
116. 黃金町 7丁目
117. 南大門通 1丁目
118. 南大門通 2丁目
119. 南大門通 3丁目
120. 南大門通 4丁目
121. 南大門通 5丁目
122. 長谷川町
123. 明治町 1丁目
124. 明治町 2丁目
125. 永樂町 1丁目
126. 永樂町 2丁目
127. 若草町
128. 櫻井町 1丁目
129. 櫻井町 2丁目
130. 花園町
131. 初音町
132. 光熙町 1丁目
133. 光熙町 2丁目
134. 北米倉町
135. 南米倉町
136. 旭町 1丁目
137. 旭町 2丁目
138. 旭町 3丁目
139. 本町 1丁目
140. 本町 2丁目
141. 本町 3丁目
142. 本町 4丁目
143. 本町 5丁目
144. 並木町
145. 南山町 1丁目
146. 南山町 2丁目
147. 南山町 3丁目
148. 壽 町
149. 日出町
150. 大和町 1丁目
151. 大和町 2丁目
152. 大和町 3丁目
153. 新 町
154. 西西軒町
155. 東西軒町
156. 倭城台町
157. 三坂通
158. 御成町
159. 吉野町 1丁目
160. 吉野町 2丁目
161. 蓬萊町 1丁目
162. 蓬萊町 2丁目
163. 蓬萊町 3丁目
164. 蓬萊町 4丁目
165. 吉市町
166. 西界洞
167. 靑葉町 1丁目
168. 靑葉町 2丁目
169. 靑葉町 3丁目
170. 岡崎町
171. 錦 町
172. 元町 1丁目
173. 元町 2丁目
174. 元町 3丁目
175. 元町 4丁目
176. 大島町
177. 彌生町
178. 淸水町
179. 山手町
180. 桃花洞
181. 岩根町
182. 麻浦洞
183. 榮 町
184. 京 町
185. 漢江通 1番地
186. 漢江通 2番地
187. 漢江通 3番地
188. 漢江通 4番地
189. 漢江通 5番地
190. 漢江通 6番地
191. 漢江通 7番地
192. 漢江通 8番地
193. 漢江通 9番地
194. 漢江通 10番地
195. 漢江通 11番地
196. 漢江通 12番地
197. 漢江通 13番地
198. 漢江通 14番地
199. 漢江通 15番地
200. 漢江通 16番地
201. 二村洞

※ 洞名은 京城府 발행 「朝鮮昭和十年國勢調査」에 기록된 것에 준하였음.

그림 2 京城府의 行政區域(1935)

지나 植民政策이 많이 수행되어진 때이었다. 더불어 서울의 人口構成에도 변화가 있어 韓國人, 日本人, 中國人, 外國人(일본인, 중국인을 제외한 주로 선교사업을 하던 서구인) 등이 서로 어울려 居住하고 있었던 時期였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1935년의 서울을 時代的 背景, 交通體系, 人口構成 順으로 고찰한 후, 民族別 居住狀態 및 居住 分離現象을 분석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2) 硏究方法

서울 人口의 地域的 分布를 분석하기 위하여 1935년에 실시된 國勢調査에 의한 인구 센서스와 「地番區劃入 大京城精圖」를 기초 자료로 使用하였다.[3] 大京城精圖는 1936년에 發行된 것으로 1935년의 서울 境界와 당시 存在하였던 201個洞의 洞別 境界를 나타내었다(그림 2). 인구 센서스는 전체 201個洞중에서 非居住地域인 漢江通 1, 4, 5, 14番地를 제외한 197個洞에 居住하였던 人口를 民族別, 男女別로 기록한 것이었다. 인구 센서스에서는 인구를 日本人과 外國人으로 크게 나누었고, 日本人은 內地人, 朝鮮人, 기타로 外國人은 滿洲國人, 中華民國人,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의 民族別 분류는 內地人을 日本人으로, 朝鮮人과 기타 日本人을 韓國人으로, 滿洲國人과 中華民國人을 中國人으로, 기타 外國인을 外國人으로 하여 넷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의 人口構成을 고찰하기 위하여 居住人口 全體와 民族別로 男女性比를 구하였다. 男女性比는 男性을 100으로 하여 女性의 比를 측정하였다. 各 民族의 地域別 分布를 고찰하기 위하여는 洞別로 各 民族이 居住하고 있는 상황과 民族別로 各 洞에 居住하고 있는 인구를 각각 백분비로 구하였다. 男女性比와 百分比는 洞別, 民族別로 地圖化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各 民族의 住居에 대한 地域分化를 고찰하기 위하여 各 民族에 대한 相異指數(the dissimilarity index)[4]를 구하였다. 相異指數를 구하기 위한 기본 단위(unit)는 197個 居住洞으로 하였다. 相異指數 구하는 공식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D=\frac{\sum_{i=1}^{n}|X_i-Y_i|}{2}$$

$$X_i=\frac{\text{한 민족이 } i\text{동에 거주하는 수}}{\text{같은 민족이 서울 전체에 거주하는 수}}\times 100$$

$$Y_i=\frac{\text{나머지 민족이 } i\text{동에 거주하는 수}}{\text{나머지 민족이 서울 전체에 거주하는 수}}\times 100$$

D=한 민족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민족의 공간적 분포의 差의 절대값을 모두 더하여 둘로 나눈 것.

이 指數는 0에서 100까지 측정될 수 있으며 0은 완전히 뒤섞여 있음을 100은 완전한 민족별 분리를 나타낸다.

서울의 時代的 背景과 交通體系에 관한 고찰은 단순한 기술에 그쳤다. 서울의 交通體系는 市內交通 특히 市內大衆交通을 주로 다루었다. 따라서 1935년 서울에 居住하였던 人口의 民族別 居住地 分離現象은 洞別, 民族別 地圖와 相異指數에 근거하여 硏究하였다.

2. 1935년의 서울

(1) 時代的 背景

1935년은 1910년 韓日合併이 이루어진 이후 25년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 日本의 植民政策도 처음의 武斷政治에서 文化政治로, 다시 武斷政治로 바뀌어졌던 時期였다. 韓日合併에 의해 主權을 상실한 이후 서울은 한 국가의 首都라는 行政的 機能을 상실하였으며 단지 植民政策 수행의 中心都市로서 전락하였다.

合併직후인 1910년 서울은 京畿道에 속하는 일개 地方都市로 전락하였고 명칭도 漢城府에서 京城府로 바뀌었다. 1913년 행정구획의 변천으

3) 森田仙堂, 1936, 地番區劃入 大京城精圖, 京城, 至誠堂.

4) Darden, Joe T. and Tabachneck, A. A., 1980, "Algorithm 8: Graphic and Mathematical Descriptions of Inequality, Dissimilarity, Segregation, or Concentr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2, pp. 227-234.

로 서울의 경계도 변화하여 면적이 36.2km²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1935년까지의 서울은 14세기 朝鮮時代의 首都로 서울이 建設된 이후 현재까지 600여년간의 역사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지녔다.

韓日合併이전부터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켰던 日本은 1904년 서울 곳곳에 散在하였던 日本軍을 大和町 2丁目(筆洞)에 집중시켰다. 또한 현재 美軍이 주둔하고 있는 龍山地域을 軍用地로 강제 수용하여 군사시설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5] 이로써 合併을 하기 전 日本軍은 이미 서울의 南東部를 차지하였고 韓國에 대한 侵略준비를 완료하였다. 合併이후 龍山地域에 주둔한 日本軍은 日本의 植民政治 수행에 절대적 역할을 하였으며 1930年代이후 日本이 계획한 大陸侵略의 軍事基地로서의 機能을 지녔다.

韓日合併이후 植民政策 수행의 中心地였던 서울에는 植民地化의 수행기관인 總督府가 設置되었다. 總督府의 最高官吏로서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과 軍事統治權까지 소유하는 總督이 임명되었다. 이밖에 서울에는 植民統治에 필요한 여러 정책기관이 設立되었다.

韓國의 政治, 軍事, 經濟, 社會, 文化의 中心地였던 서울은 日帝下에서도 그 機能을 대체로 유지하였다. 특히 經濟面에 있어서 近代的 商業活動이 활발하였고, 工業의 급진적인 發達도 있었다. 家內手工業 中心에서 住居地와 분리하여 工場이 세워졌고, 中林町을 비롯 서울역 주변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工業地區가 形成되었다. 日帝下의 商業中心地는 朝鮮時代의 商業中心地였던 鍾路, 南大門通을 비롯한 그 일대와 本町, 黃金町 등지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1935년의 이 지역은 近代的인 商業活動의 효시인 百和店이 곳곳에 있었으며 각종 상점이 집중하여 分布하였다. 이밖에 東大門, 南大門 市場을 비롯한 공설 및 사설 시장이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활발한 市場中心 經濟가 이루어졌다.

都市 곳곳에 특히 日本人의 居住地域 및 日本人에 의해 개발된 新市街地에는 건축 양식을 비롯 여러가지 면에서 日本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日本式으로 개조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南山에는 神社를 建立하여 韓國民에게 강제로 참배케 하였다. 이는 사실상 他宗教의 韓國內 전파를 금지시켜 韓國人의 精神까지 日本化시키려 한 것이다.

日本語를 國語로서 使用하였으나 韓國語의 使用 및 학습을 인정하였던 日本은 1935년 한글보급운동의 중지령을 내렸다.[6] 따라서 東亞日報, 朝鮮日報에서 행하였던 한글의 보급과 文盲退治에 기울였던 노력은 중지되었다. 이로써 日本은 言語의 말살정책을 촉진시켰으며 韓國人의 固有文化까지도 日本化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1935년의 서울에는 최고식민통치기관인 總督府를 비롯 植民統治에 필요한 각 기관 및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또한 韓國人의 精神을 말살하기 위한 日人의 상징인 神社가 南山에 建立되어 있었다. 기독교를 비롯한 宗教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글의 보급운동도 금지시키는 등 우리의 文化를 말살시키기 위한 노력도 그치지 않았다.

都市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業務地域, 백화점, 상가 등이 分布한 商業地域, 工場이 있는 工業地域, 군대가 주둔한 軍事地域, 住居地域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즉 商工業的 機能이 증가한 서울은 土地利用에 있어서 機能別 地域分化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住居地域은 전통적인 주거지역과 새로이 개발된 주거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역은 住民構成, 건축 양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이 1935년의 서울은 우리의 전통적인 都市構造와 支配者에 의해 이루어진 都市構造가 혼재하는 즉, 二元的 都市構造를 지닌 植民都市로서의 特色을 나타내고 있었다.

(2) 市內 交通體系

都市의 交通은 우선 市內交通과 市外交通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수단에 의해서는 陸上交通, 水運交通, 航空交通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의 市內交通은 電車, 自動車(택시), 人力車, 自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서울六百年史, 제 4 권, p. 302.
6) 上揭書, pp. 637-638.

轉車 등 陸上交通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반면에 1935년 당시 서울과 다른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市外交通으로는 鐵道, 汽動車, 自動車(버스) 등의 陸上交通과 水運交通, 航空交通 등이 發達되어 있었다.

서울과 다른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市外交通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鐵道交通이었다. 鐵道交通은 韓末에 이미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 서울과 仁川을 연결시켜 주는 京仁線의 개통을 시작으로 1906년에는 京義線이, 1908년에는 京釜線이, 1914년에는 京元線이 각각 개통되었다.[7] 이로써 서울을 中心으로한 鐵道의 四大幹線이 개통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近代的 交通發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日帝時代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鐵道는 貨物의 수송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유일한 大衆交通手段이었다. 鐵道와 경쟁할 수 있는 大衆交通手段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을 왕래하는 自動車(버스)가 운행되었다. 이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주로 운행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利用하였으나 1930년대의 大衆交通手段으로 서울과 지방을 연결시켜 주는 교통수단은 역시 鐵道였다.

1935년 서울의 居住民이 利用하였던 交通手段 중에서 大衆交通手段은 電車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버스가 서울에 운행되기 시작하여 電車와 함께 大衆交通手段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32년 경영권이 경성전기주식회사로 넘어감에 따라 시내 운행은 중지되었고 버스는 시외교통에만 이용되었다.[8] 市內交通의 한몫을 담당했던 人力車, 自動車(택시), 自轉車 등은 한사람에서 수명 정도 탈 수 있는 특수층을 위한 교통수단이었다. 따라서 電車는 당시 서울의 유일한 大衆交通手段이었다.

電車는 西大門에서 淸凉里까지 그 運行을 시작함으로써 서울의 大衆交通으로 처음 등장하였다.[9] 이는 1899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서울의 交通發達史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서울에 부설된 電車는 Collbran과 Bostwick의 건의로 高宗의 洪陵행차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는 일반 대중이었으며 먼 지역까지 빠른 시간내에 갈 수 있다는 편리함은 점차 이용자의 급증을 유도하였다.

電車에 의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여 새로운 社會問題로 대두되기도 했지만 電車는 점차 市民의 절대적인 交通手段이 되었다. 더우기 서울이 주거지와 근무지가 일치하거나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였던 前産業型都市에서 住居地와 근무지가 점차 분리되는 都市構造를 이루게 되면서 電車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電車의 運行은 서울을 도보형도시(walking city)에서 전차형도시(street car city)로 전환시키는 매개체였다.

外國의 경우, 電車는 大衆의 心要에 의해 運行이 始作되었고 요금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근무지와 주거지를 主로 연결시켜 주는 交通手段이었던 관계로 노동자들이 대부분 主要 이용자들이었으며 이들을 위한 할인요금도 설정되었었다. 電車의 운행은 근무지와 주거지 분리를 촉진시켰으며 住居地의 확대, 工場地域의 확산 등 都市內의 地域分化와 都市空間의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外國의 경우와 크게 달랐다. 첫째, 電車의 設置 目的이 一般 大衆을 위한 것 보다는 特定人을 위한 것이었다. 둘째, 電車 路線을 따른 地域分化나 都市의 空間 확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1913년 서울의 경계가 정해진 이후 1935년까지 人口는 많은 증가를 하였으나 都市 境界가 한번도 확장되지 않았으며, 1935년에 運行되었던 電車路線의 分布로써 입증된다.

1935년에 서울에 운행되었던 電車路線은 그림 3과 같다.[10] 電車路線은 中央業務地構인 鍾路, 南大門通, 大平通 地域을 中心으로 都市의 외곽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大部分이 都市內에 分布

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2, 서울通史, 상권, pp. 352-357.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前揭書, pp. 981-984.
9) 京城電氣株式會社, 1958, 京城電氣株式會社 六十年沿革史, p. 229.
1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前揭書, pp. 973-97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2, 前揭書, p.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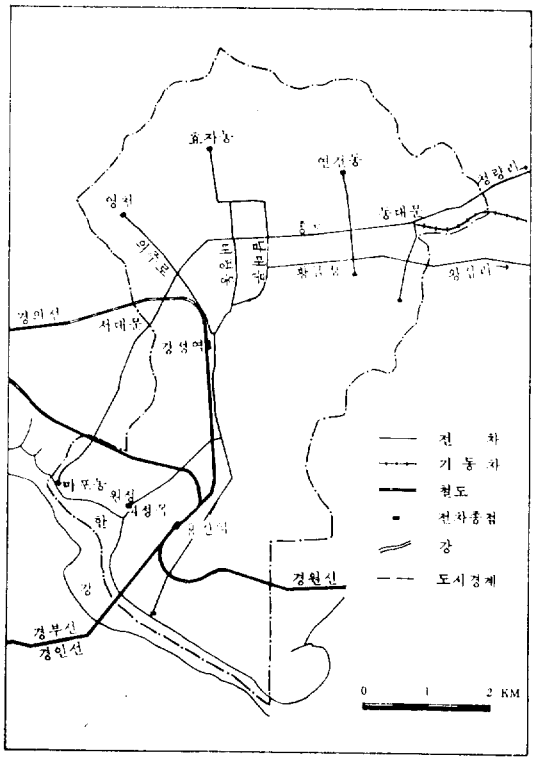


그림 3 京城府의 電車路線(1935)

하고 있으며 西大門에서 麻浦까지의 일부와 淸凉里, 往十里行 路線 일부가 都市밖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路線의 大部分은 1910년대에 부설되었고 1920년대에 들면서 電車路線의 新設은 둔화되었다. 또한 1910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電車路線의 復線化는 1935년에 西大門~麻浦, 獨立門~靈泉, 往十里線 일부, 中央廳~安國洞, 新龍山~漢江人道橋를 제외한 全路線에 이루어졌다.[11]

結論的으로, 時間의 변천에 따른 電車路線의 增設은 1920년대 이후 거의 없었으나 路線의 復線化는 1910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다시말하면 기존 도시내에서의 交通發達은 이루어졌으나 都市 外部로의 路線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는 電車路線을 따른 新市街地의 發達 및 都市의 확장은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電車 利用者數는 지속적으로 增加하고 있었으며 電車는 當時 都市內 重要한 交通手段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935년 서울의 交通體系는 市外交通의 鐵道와 버스, 市內交通의 電車를 中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울과 各 地方을 연결시켜 주는 市外交通으로 鐵道交通은 여객이나 貨物 수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交通手段이었다. 電車는 처음 設置目的과는 달리 都市民의 通行을 원활히 해준 都市內 唯一의 大衆交通手段이었다.

3. 人口 分布와 居住地分化

(1) 人口構成

1935년 서울에는 全國 人口의 약 1.9%를 차지하는 437,404명이 거주하였다. 人口密度는 약 12,083명/km²으로 무척 조밀하였다. 京城 居住 人口의 民族別 構成은 韓國人이 제일 많은 310,415명으로 全體의 71.0%를 차지하였다. 두번째로 많이 居住한 民族은 日本人이며 119,684명으로 全體의 27.3%를 나타내었다. 소수민족으로 居住하였던 中國人과 外國人은 6,899명으로 全體의 1.6%, 406명으로 0.1%를 각각 차지하였다.

男女性比에 의한 서울 居住 人口의 人口構成은 男性 100.0에 대해 女性은 95.5로 男性이 더 많이 居住하였다. 이들의 洞別 分布를 살펴보면 전체 201洞中에서 비거주지역을 제외한 197洞중 男女別 居住人口가 같아 性比가 100.0이 되는 곳은 東崇洞 한 곳이었다(그림 4). 男性이 女性보다 많이 居住하는 지역은(100.0미만) 126個洞이며 女性이 더 많이 居住하는 지역은 모두 70個洞이었다.

男性이 절대적으로 많이 居住한 性比 60.0이하의 지역은 9個洞으로 南大門通을 中心한 주변지역으로 대체로 商業地域이었다. 이들중 특히 남성이 많이 居住했던 地域은 二村洞(33.5), 長谷川町(34.8), 西小門町(37.4), 南大門通 1丁目(38.9) 등이다. 그밖에 男性이 더 많이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性比 60.1~80.0를 기록한 地域은 21個洞으로 대체로 中央業務地構 및 그 주변지역과 漢江通 일부 지역으로 大別할 수 있다.

1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前揭書, p.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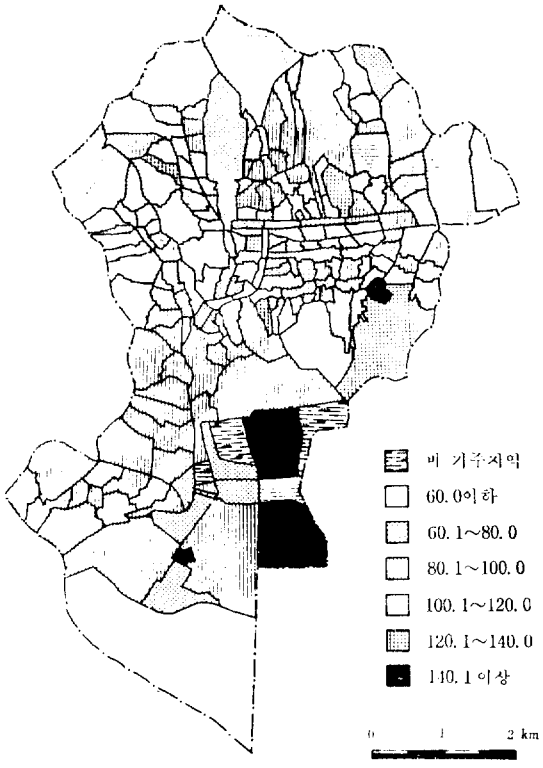


그림 4 京城 居住人口의 性比(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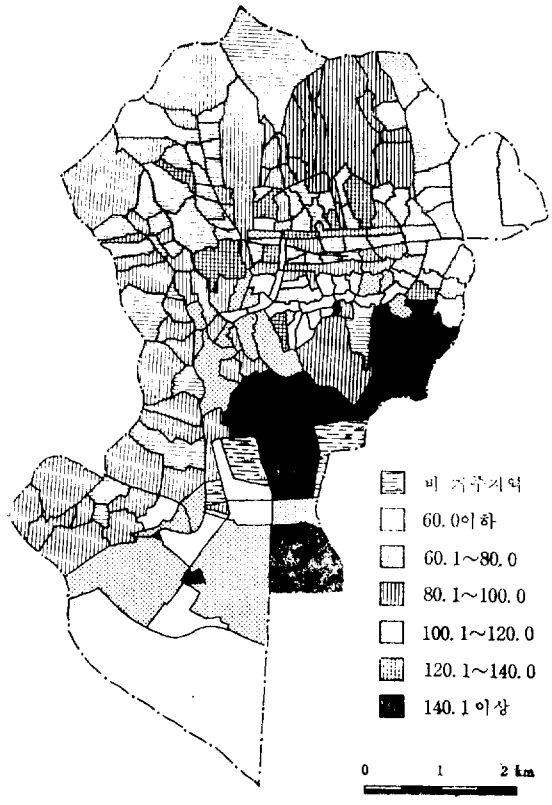


그림 5 京城 居住 韓國人의 性比(1935)

性比 80.1~100.0사이를 기록한 地域은 96個洞(東崇洞제외)으로 都市 南部 특히 新興 住居地域과 麻浦 방면에 더 많이 分布하였다.

女性이 많이 居住하는 地域中에서 性比 100.1~120.0을 나타내는 지역은 60個洞으로 都市 北部에 主로 分布하였으며 都市 西部의 靈泉방면, 東部지역, 中心商街 외곽지역에 비교적 集中 分布하였다. 반면에 性比 120.1~140.0을 나타내는 지역은 6個洞으로 都市 각 곳에 散在해 있다. 性比가 140.1이상으로 女性이 특히 많이 居住하는 地域은 4個洞으로 그중 셋은 漢江通 地域에 分布한다. 漢江通 地域은 軍事地域으로 이 地域의 人口 조사가 軍人을 제외하고 그 지역 居住민간인(군인의 가족 및 고용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性比 195.1로 最高를 기록한, 즉 女性이 男性보다 월등히 많이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新町의 경우는 환락가가 밀집해 있던 그 洞이 지닌 特殊性 때문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男性이 더 많이 居住하고 있는 都市였으나 性比 100.0을 기준으로 ±20.0을 기록한 지역은 全體의 79.2%(156個洞)로 男女人口가 都市 全體에 비교적 고르게 分布하였음을 나타낸다. 男性이 월등히 많이 居住하고 있는 地域(80.0이하)은 각 관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商街가 있는 中央業務地構와 二村洞을 포함한 漢江通의 都市 南部地域이었다. 반면에 女性이 월등히 많이 居住한 지역(120.1이상)은 都市 곳곳에 散在하였다.

民族別 男女構成을 고찰해 보면 各 民族이 지닌 特色을 잘 알 수 있다. 서울 居住 韓國人의 性比는 98.2로 男女의 居住人口數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韓國人이 서울이 朝鮮時代 首都로서 設立되어진 이래 居住해 온 전통적인 居住人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性比 80.1~120.0까지 비교적 男女數가 비슷하게 分布한 지역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이 地域은 韓國人이 居住하는 全體 197個洞 중 69.0%에 달하는 136個洞으로 大部分 전통적인 韓國人 住居地域에 해당한다(그림 5).

男性이 월등히 많이 居住하는 性比 60.0이하의 지역은 모두 22個洞으로 南大門通과 새로 形成된 商街인 本町(퇴계로)주변 지역인 商業地域과 二村洞과 漢江通 일부 지역에 分布한다. 性比 60.1~80.0의 男性이 많이 居住하는 지역은 이 地域의 주변지역이며 都市의 南部 즉 日本人에 의해 새로 개발된 지역에 대부분 分布한다.

반면에 女性이 많이 居住하는 性比 120.1~140.0을 나타내는 地域은 8個洞으로 비교적 都市 中心部에 곳곳에 分布하고 있다. 그러나 女性이 절대적으로 많이 居住하는 地域은 모두 日本人에 의해 개발된 地域이다. 이중에서 漢江通 12番地는 韓國人 女性 1名만이 居住하고 있으며 漢江通 2·10番地는 性比 250.0과 290.9를 각각 나타낸다. 이와같이 日本人에 의한 개발지역에 韓國女性의 性比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韓國女性이 日本人 가정에 고용살이 하고 있는 결과로 추측된다.

日本人의 서울 居住人口의 男女性比는 96.2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 있다. 더구나 日本人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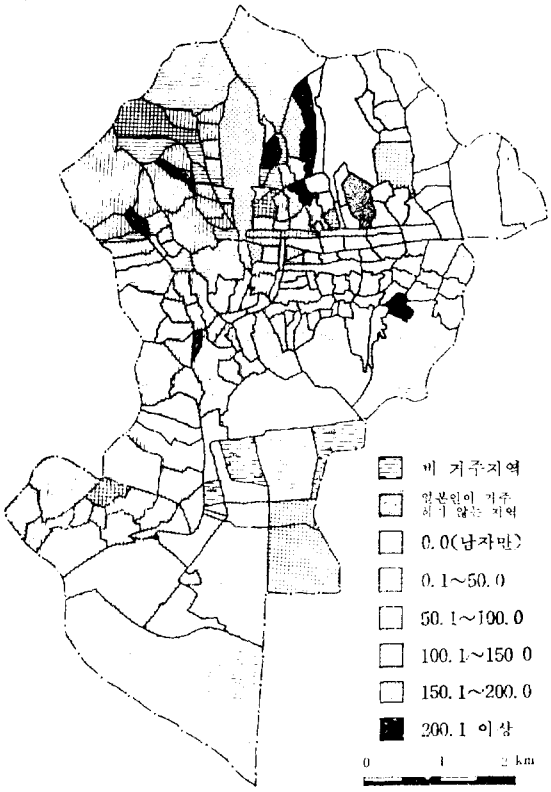


그림 6 京城 居住 日本人의 性比(1935)

薰井洞, 橋北洞, 蓬萊町 2丁目을 제외한 194個洞에 居住하였다(그림 6). 이는 植民政策이 잘 이루어져 많은 日本人이 安定된 상태에서 居住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바꾸어말하면 서울이 日本人들의 安定된 居住地로 日本化가 많이 이루어진 결과로 여겨진다.

男女의 居住人口數가 같아 性比 100.0을 기록한 지역은 安國洞, 授恩洞, 瑞麟洞, 南大門通 4丁目, 漢江通 7番地, 岩根洞 등 6個洞이다. 性比 100.0을 기준으로 ±20.0을 기록한 지역은 155個洞으로 전체의 79.9%를 나타내며 ±50.0을 기록한 지역은 177個洞으로 全體의 91.2%를 나타낸다.

男性만 居住한 지역은 鳳翼洞이며 女性만 居住한 地域은 桂洞이다. 그러나 數에 있어서는 극히 적어 鳳翼洞에서는 1명, 桂洞에는 2명만이 居住하였다. 일반적으로 日本人 男女性比가 극히 적거나 크게 기록된 지역은 都市 北部로 特定한 유형없이 뒤섞여 分布하였다. 都市 南部에서는 男性이 월등히 많이 居住한 곳은 없으며 女性이 절대적으로 많이 居住한 지역만 있었다.

특히 新町의 경우는 性比 252.4를 기록하여 많은 女性이 居住하였음을 나타낸다. 新町 全體人口의 性比(195.1), 新町 居住 韓國人의 性比(64.1)와 비교해 볼 때 환락가였던 新町의 主居住人은 日本 女性이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他地域과는 다른 人口構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中國人의 民族別 男女性比는 15.7로 절대적인 男性 우위를 나타낸다. 中國人이 居住하였던 142個洞중에서 女性이 男性보다 1명이라도 많이 居住했던 곳은 없으며 內資洞이 性比 60.0을 기록하여 가장 女性이 많이 居住한 地域이었다(그림 7). 더우기 女性이 한명도 居住하지 않은, 男性만 居住했던 洞은 모두 57個洞으로 中國人 居住洞의 40.1%나 차지한다. 이와같은 中國人의 서울 居住 유형은 中國人이 移民族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移民에 의한 居住일 경우 보편적으로 가족동반 이주보다는 男性이 먼저 移住하여 정착하고 후에 가족이 移住하게 된다. 따라서 1935년 서울에 居住하였던 中國人의 경우, 서울 各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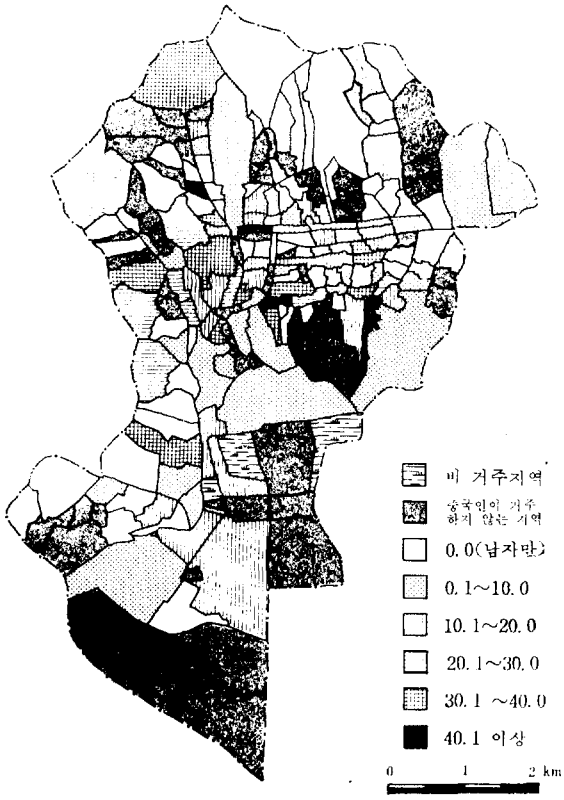


그림 7 京城 居住 中國人의 性比(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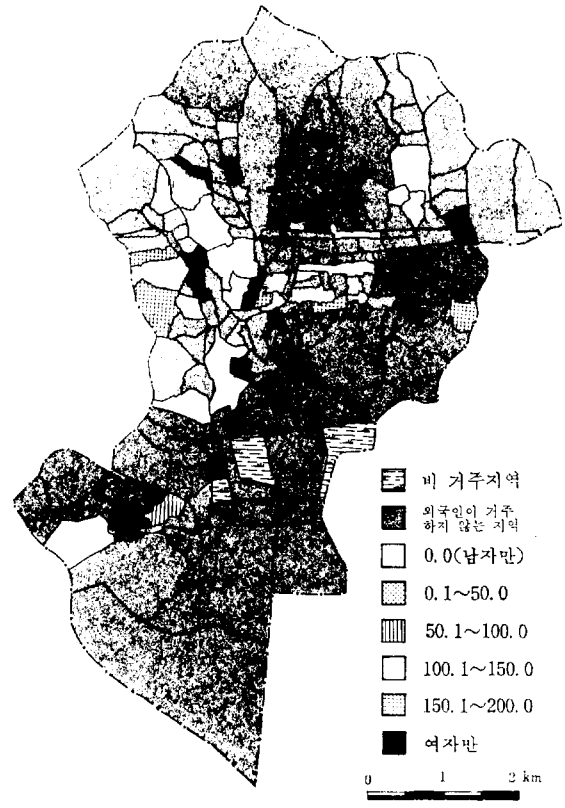


그림 8 京城 居住 外國人의 性比(1935)

居住하고는 있으나 아직 移民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外國人의 경우는 이상 세 民族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男女性比가 113.7로 女性이 더 많이 居住하는 唯一의 民族인 것이다. 性比의 폭도 男性만 거주하는 경우에서 女性만 居住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外國人이 居住하는 全體 47個洞중에서 男性 또는 女性 어떤 한쪽만 居住하고 있는 지역은 44.7%에 해당하는 21個洞이다(그림 8). 그러나 이들 지역에 居住하는 外國人數는 보통 한명에서 세 명 정도 밖에 안된다.

1935년 서울에 居住하였던 外國人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은 特殊한 目的을 갖고 居住하였던 이유로 居住에 一定한 類型없이 여러 지역에 적은 수가 分散하여 居住하였다. 따라서 性比에 따른 分布類型도 어떤 특정한 형태를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1935년 서울에 居住하였던 人口는 女性보다 男性이 全體的으로 많았다. 그러나 民族別 男女人口의 分布는 各 民族이 지닌 特色에 따라 다양하였다. 韓國人과 日本人의 경우는 男性이 약간 많이 居住하였고, 中國人은 절대적으로 男性이 많이 居住한 반면, 外國人의 경우는 女性이 더 많이 居住하였다.

(2) 民族別 居住地分化

서울에 居住하는 人口를 각 洞別로 본 民族別 構成은 各 民族의 居住地 分化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그림 9는 각 동에 居住하는 각 民族의 居住를 백분비로 하여 民族別로 그린 것이다. 地圖化를 위한 백분비의 등급은 20.0%를 기준으로 하여 0.1~20.0%, 20.1~40.0%, 40.1~60.0%, 60.1~80.0%, 80.1~100.0%의 5등급과 해당 洞에 居住하기는 하나 그 數가 극히 적어 0.0%를 나타내는 경우를 합쳐 모두 6등급으로 分類하였다.

韓國人의 경우 居住人의 數가 적어 0.0%를 나타내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반면에 洞全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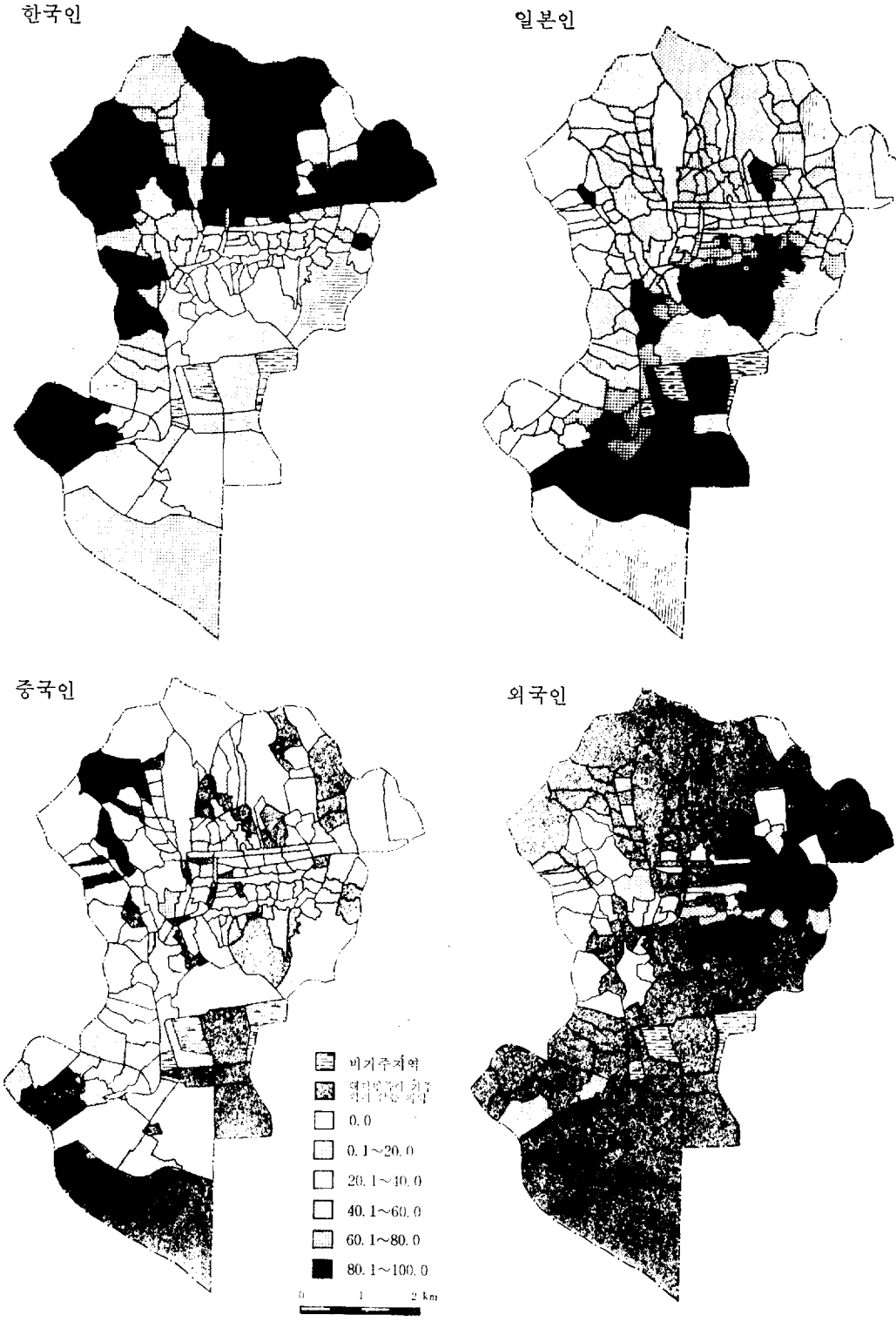


그림 9 洞別 民族別 人口分布(1935)

에 韓國人만 居住하는 즉 韓國人이 100.0%를 나타내는 地域은 薰井洞이며, 他民族이 居住하나 그 數가 적어 韓國人이 100.0%를 나타내는 地域은 鳳翼洞이었다.

韓國人이 洞民의 80.1%이상을 차지하는 地域은 모두 91個洞이며 60.1%~80.0%를 차지하는 지역은 36個洞이다. 따라서 韓國人이 절대적으로 많이 分布하는 지역은 全體의 46.2%이며 60.1%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전체의 64.5%에 달한다. 이들 韓國人이 많이 居住하는 地域은 都市의 北部와 西部로 서울의 전통적인 住居地域이다. 반면에 韓國人이 洞民의 20.0% 이하를 차지하는 地域은 全體의 17.8%인 35個洞이며 이들은 모두 都市 南部 즉 日本人에 의해 개발된 新興居住地域에 分布한다.

日本人의 居住狀態를 살펴보면 韓國人의 경우와 비교적 반대현상을 나타낸다. 日本人이 洞民의 80.1%이상을 차지하는 地域은 30個洞이며 60.1~80.0%를 차지하는 地域은 20個洞이다. 따라서 日本人이 절대적으로 많이 居住하는 지역은 15.5%이며 대체로 많이 居主하는 지역은 25.8%이다. 이들 日本人이 洞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地域은 都市의 南部에 모두 分布하고 있다.

반면에 日本人이 洞民의 20.0%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地域은 90個洞으로 全體의 46.4%를 차지하며 이들은 都市의 北部와 西部에 대체로 分布한다. 또한 日本人이 洞民의 100.0%내지 거의 100.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지만 日本人이 居住하기는 하나 그 數가 극히 적어 0.0%를 나타내는 곳은 都市 北部에 分布하는 桂洞과 鳳翼洞이다.

中國人의 경우 洞民의 80.1%이상을 차지하는 地域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中國人이 居住는 하나 그 數가 극히 적어 0.0%를 나타내는 곳은 館洞, 靑葉町 1丁目, 桃花洞의 3個洞이다. 中國人이 居住하는 地域中에서 中國人이 洞民의 20.0%이하를 차지하는 지역은 135個洞으로 전체의 95.1%에 해당된다. 中國人이 洞民의 20.1~40.0%를 차지하는 지역은 蓬萊町 2丁目과 太平通 2丁目이며 40.1~60.0%를 차지하는 地域은 長谷川町이다. 中國人이 가장 많은 洞民의 구성원인 지역은 西小門町으로 60.1%를 차지한다. 따라서 中國人은 서울 全域에 걸쳐 소수가 各洞에 分散되어 居住하고 있으며 일부지역 즉 西小門町을 中心으로 太平通 2丁目과 長谷川町에 集中居住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外國人의 경우는 外國人이 居住하고 있는 各洞에서 구성원의 20.1%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한 곳도 없다. 더우기 0.1~20.0% 등급에 속하는 洞들도 대부분이 1.0%미만을 나타내며 貞洞이 6.0%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外國人은 그들의 서울 居住 目的에 맞는 各洞에 소수로 居住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서울 居住 人口의 洞別 民族別 居住狀態는 各民族의 特色과 居住地 分離現象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울에 살아온 韓國人은 全地域에 居住하고는 있으나 서울의 舊市街地인 전통적인 居住地域에 集中居住하고 있었다. 반면에 支配民族이었던 日本人은 서울 거의 全地域에 居住하고는 있었으나 主로 日人에 의해 개발된 新興居住地域인 都市 南部에 集中居住하였다. 따라서 서울은 都市 居住民의 98.3%를 차지하는 피지배민족인 韓國人과 지배민족인 日本人의 居住地域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다. 즉, 韓國人은 舊市街地를 중심으로 한 都市 北部와 西部地域에, 日本人은 新市街地인 都市 南部地域에 集中居住하였다.

서울 居住人口의 1.7%만을 차지하였던 中國人과 外國人의 居住는 각곳에 分散되어 있어 뚜렷한 特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中國人의 경우는 西小門町에 韓國人과 日本人의 數를 능가하여 集中居住하고 있었다. 또한 그 주변지역에 비교적 많이 居住하여 中國人村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1935년의 서울은 韓國人과 日本人, 그리고 中國人에 의해 居住地가 分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民族別 居住地 集中現象

1935년 서울에 居住하였던 各 民族의 洞別 居住現況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은 各 民族의 몇 %가 어떤 洞에 居住하고 있는지 즉, 各 民族의 洞別 集中現象을 보여주는 것이다. 地圖化를 위한 등급은 해당 洞에 居住하기는 하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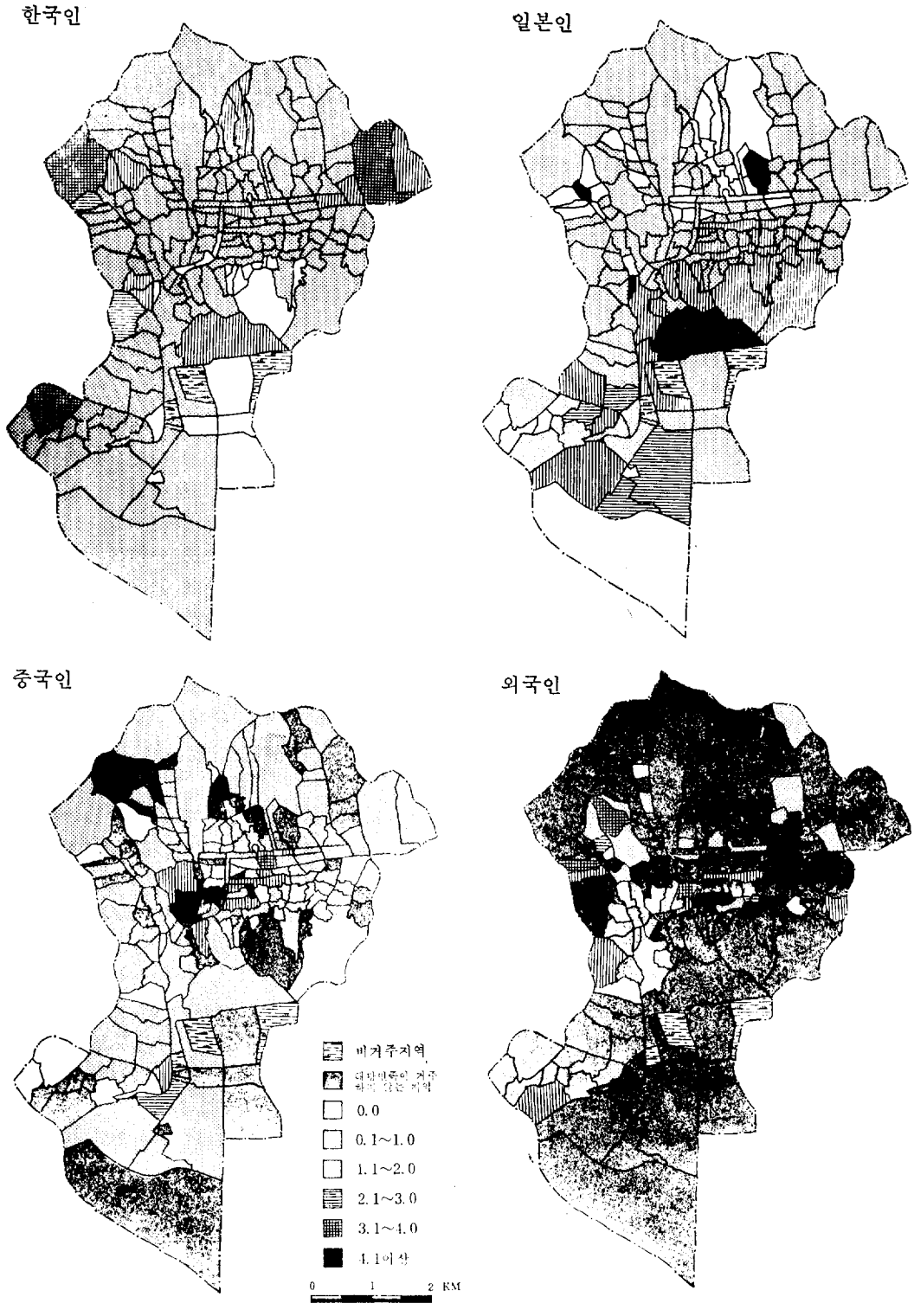


그림 10 民族別 人口集中分布(1935)

數가 全體에 비해 아주 적어 0.0%를 나타내는 것과 간격을 1.0%로 하여 0.1~1.0%, 1.1~2.0%, 2.1~3.0%, 3.1~4.0%, 4.1% 이상의 5등급으로 나누어 全體 6등급으로 分類하였다.

韓國人 全體의 4.1%이상이 集中居住하고 있는 지역은 한 洞도 없었다. 반면에 韓國人이 居住하고 있기는 하나 그 數가 극히 적어 0.0%를 기록한 지역은 모두 20個洞이었다. 이들은 南大門通의 商街와 倭城台町을 中心한 日本人 居住地域, 漢江通의 軍事地域 등 모두 都市 南部에 分布하고 있다.

韓國人의 0.1~1.0%가 居住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159個洞으로 全體의 80.7%를 차지한다. 韓國人의 1.1~2.0%가 居住하고 있는 洞은 13個洞이며 2.1~3.0%가 居住하는 洞은 단 2個洞이다. 또한 韓國人 全體의 3.1~4.0%가 居住하는 地域은 峴底洞, 昌信洞, 桃花洞의 3개 지역이다. 韓國人의 1.1~4.0%가 居住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都市 北部와 西部에 分布하였는데 日本人 居住地域인 三坂通이 포함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日本人의 洞別 分布는 日本 住居地域에 日人들의 集中 居住 現象을 잘 나타내어 준다. 日本人의 3.1~4.0%가 居住하였던 洞은 하나도 없으나 4.1%이상이 居住하였던 곳은 日本人의 전형적인 신흥주택지역인 三坂通으로 4.3%를 기록하였다. 또한 日本人의 1.1~2.0%가 居住하였던 지역은 28個洞이며 2.1~3.0%가 居住하였던 지역은 4個洞인데 이들 모두가 都市 南部에 分布하였다.

日本人 全體의 0.1~1.0%가 居住하였던 지역은 모두 123個洞이며 이는 全體의 63.4%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은 都市 全體에 分布하나 主로 都市 北部와 西部에 集中하여 있는 경향이다. 또한 日本人이 居住하기는 하나 日本人 全體에 대하여 그 數가 극히 적어 0.0%를 기록한 지역은 모두 38個인데 二村洞, 麻浦일대, 義州通 2丁目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都市 北部에 分布하였다. 따라서 日本人은 서울의 北部와 西部에는 비교적 적게 居住하였으며 日本人에 의해 개발된 신흥주택지역에 集中 居住하고 있었다.

中國人의 경우는 中國人의 特定地域 集中現象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中國人의 居住가 기록되어 있으나 그 數가 극히 적어 0.0%를 나타내는 지역은 17個洞으로 都市 각처에 分散되어 있다. 中國人 全體의 0.1~1.0%가 居住하고 있는 地域은 111個洞인데 이들 역시 都市 全體에 흩어져 分布한다. 결국 中國人의 1.0%이하가 居住하는 洞은 全體의 90.1%를 차지하는 128個洞이며 都市 全域에 分散되어 있다.

반면에 中國人의 2.1~3.0%가 居住하는 곳은 漢江通 13番地 한곳 뿐이나 1.1~2.0%가 居住하는 지역은 9個洞으로 主로 商業地域 부근에 分布한다. 더우기 이들 지역은 中國人의 3.9%가 居住하는 觀水洞과 8.8%, 13.8%, 23.9%가 각기 居住하는 長谷川町, 太平通 2丁目, 西小門町과 연결되어 分布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人의 洞別 集中居住現象은 西小門町, 太平通 2丁目, 長谷川町을 中心한 제 1 集中地域과 觀水洞을 中心한 제 2 集中 居住地로 分類해 볼 수 있다.

外國人의 洞別 分布는 他民族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첫째, 서울 居住 外國人의 數가 적은 이유도 있겠으나 外國人이 居住는 하나 그 數가 극히 적어 外國人 全體의 0.0%를 기록하는 洞은 하나도 없다. 둘째, 外國人 全體의 0.1~1.0%가 居住하는 洞은 27個洞으로 全體의 57.4%를 차지하는데 外國人 居住洞 全域에 散在하여 있다. 이밖에 外國人의 1.1~2.0%가 居住하는 5個洞과 2.1~3.0%가 居住하는 2個洞도 역시 分散되어 있다. 셋째, 外國人의 3.1~4.0%가 居住하고 있는 地域은 4個洞이며, 4.1%이상이 居住하고 있는 地域은 9個洞이나 된다. 따라서 外國人 全體의 3.1%이상이 居住하고 있는 洞은 27.7%이며 4.1%이상은 19.1%를 기록하여 他民族에 비해 그 비율이 무척 높다. 이들 地域의 分布는 대체로 都市의 中央部 및 西部에 集中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때 천주교 및 신교의 교회가 있는 곳이거나 종교재단에서 設立한 學校가 位置하여 있는 곳에 나타난다. 外國人의 洞別 居住現況에서 外國人이 한 洞에 가장 많이 分布한 곳은 貞洞이며 全體의 15.5%가 居住하고 있었다. 貞洞은 梨花, 배재 등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貞洞教會 등이 位置하여 있는 곳이다.

結論的으로 各 民族의 洞別 分布는 各 民族의

居住歷史 및 民族的 特殊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서울 居住에 가장 오랜 歷史를 지닌 韓國人은 特定地域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分布하나 日人의 住居地域에는 비교적 적은 수가 居住하였다. 日本人은 植民都市에 居住하는 支配民族의 特色을 잘 나타내고 있다. 植民地化의 성공으로 日本人들이 대체로 전지역에 居住하고는 있으나 韓國人의 전통적인 住居地域에는 대체로 적게 分布하며 그들에 의해 개발된 新興住居地域 및 商業地域에 集中 居住하고 있다. 中國人의 경우는 西小門町을 중심한 지역과 觀水洞을 중심한 지역의 二大集中居住地域을 形成하였다. 반면에 外國人은 분포가 비교적 다양하며 그들의 居住目的이 맞는 地域에 集中居住하는 現象을 나타내었다.

(4) 民族別 居住地 分離現象

이제까지 各 洞의 民族別 分布와 各民族의 洞別 居住現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각 민족은 그들의 서울 居住歷史 및 民族이 지닌 特殊性, 居住目的에 따라 각기 다른 居住類型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各 民族은 民族別 居住地 分離現象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各 民族의 住居地分化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民族別 居住地 分離를 測定하기 위하여 197個 居住洞을 단위로하여 民族別 상이지수(the dissimilarity index)를 구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1935년 서울에 居住하였던 네 民族에 대한 各 民族의 他民族과의 分離 정도를 나타내는 상이지수가 구하여졌다. 다시말하면 표 1의 상이지수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민족의 住居地域이 他民族의 住居地域과 어느 정도 分離되어 있는가 또는 섞여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표 1에 의하면 外國人의 경우 居住地分離 정도가 가장 높아 상이지수 79.6을 기록하였다. 그다음 民族이 日本人으로 66.1을 나타내고 있으며, 韓國人의 65.4, 中國人의 65.1의 順으로 상이지수가 測定되었다. 따라서 네 民族 모두 65.0이상의 상이지수를 보여 民族間의 居住地分離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음은 나타내고 있다.

〈表 1〉 1935년 서울의 민족별 상이지수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외국인
상 이 지 수	65.4	66.1	65.1	79.6

外國人은 1935년 서울에 居住하는 民族中 가장 뚜렷한 居住地 分離現象을 나타내고 있었다. 상이지수가 거의 80을 기록하여 他民族으로 부터의 거의 완전한 分離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그림 10의 外國人 洞別 居住狀態에서도 都市 中央部에 居住集中을 보인 것으로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外國人은 1935년 당시 서울에 居住하던 人口의 0.1%밖에 차지하지 않아 높은 상이지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特定地域에서의 居住密集은 나타내지 못한다. 이는 그림 9의 洞別 外國人 居住現況을 地圖化한 것에서 뒷받침되어진다.

서울에 居住하는 民族中 가장 낮은 상이지수를 기록한 민족은 中國人이었다. 이는 그림 9와 10에서 西小門町을 中心으로 뚜렷한 居住地 分離現象을 보였던 中國人이나 서울 居住人口의 1.6%밖에 차지하지 못한 人口로 서울 대부분 지역에 分離되어 居住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中國人과 비슷한 정도의 상이지수를 나타낸 民族은 韓國人이었다. 서울 居住人口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居住歷史가 긴 韓國人이 서울 居住歷史도 짧고 移民의 初期 단계에 머물고 있는 中國人과 비슷한 상이지수를 기록한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었다. 이는 그림 9와 10에서도 나타내 주는 바와 같이 韓國民이 都市 全域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韓國人 密集地域과 희소지역이 뚜렷이 구분되는 결과로 추측된다.

支配民族으로 新市街地를 형성하여 居住해온 日本人은 外國人보다는 낮으나 韓國人, 中國人보다는 높은 상이지수를 기록하였다. 일본인의 居住地 分離現象은 그림 9와 10의 日本人에 관한 地圖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그림 9에서는 洞民의 60.0%이상이 日本人인 경우는 모두 都市 南部에 分布하였다. 그림 10에서도 日本人의 1.1%이상이 居住하는 洞은 都市 南部에만 分布하여 日本人의 密集地域과 희소지역을 분명히 나타내 주었다.

結論的으로 1935년 서울에 居住하였던 韓國人 日本人, 中國人, 外國人은 모두 測定된 상이지수를 통해 비교적 높은 정도의 民族間 居住地 分離現象을 나타내었다. 네 民族中 서울 居住目的이 他民族과는 전혀 달랐던 外國人의 경우 가장 높은 상이지수를 기록하여 居住地域이 他民族과는 상당히 分離되어 分布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밖에 세 民族은 日本人, 韓國人, 中國人順으로 상이지수가 측정되었으나 세 民族의 경우 정도가 거의 비슷하여 비슷한 정도로 세 民族은 他民族과 居住地 分離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4. 結　論

京城府로 불리웠던 1935년의 서울은 植民都市의 特徵인 二元的 都市構造를 지니고 있었다. 韓日合併이후 國都의 位置를 상실한 서울은 京畿道의 일개 地方都市로서 日本의 植民政策 수행의 中心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에는 植民統治機構들이 位置하였으며 神社를 비롯하여 日本 文化의 영향이 곳곳에 分布하였다. 또한 前產業型都市에서 近代的인 都市로 탈바꿈을 시도하던 서울에는 工業의 近代化, 새로운 形態의 商業活動과 함께 地域의 分化가 이루어졌다. 즉 公共機關이 位置한 業務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 軍事地域 및 住居地域으로 都市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住居地域은 都市의 舊市街地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住居地域과 日本人에 의해 개발된 都市 南部의 新興住居地域으로 분리되었다.

서울의 主要 交通手段은 市外交通의 鐵道와 市內交通의 電車가 있었다. 1935년의 唯一한 都市內 大衆交通手段이었던 電車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都市의 地域分化 및 都市의 空間 확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서울을 도보형 도시에서 전차형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먼거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었던 까닭에 대중의 이용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都市 交通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서울의 人口構成은 韓國人, 日本人, 中國人, 外國人으로 이루어졌으며 男超現象을 나타내었다. 네 民族中에서 韓國人과 日本人은 비교적 男女가 균등히 分布하는 상태를 보였으나 中國人의 경우는 男性이 女性보다 월등히 많이 居住하였다. 外國人의 경우는 女超現象을 나타내어 서울 居住人의 特色을 잘 반영하였다. 中國人이 他民族과는 달리 뚜렷한 男超現象을 보인 것은 移民으로 居住하기 시작하여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유일하게 女超現象을 보인 外國人의 경우는 그 구성원이 대부분 선교사나 학교의 교사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서울에 居住하는 各 民族의 居住地 分離現象은 洞別 民族別 人口分布, 民族別 洞別 人口分布 및 各 民族의 他民族에 대한 分離 정도를 나타내는 상이지수에 의해 공간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韓國人은 서울 全地域에 걸쳐 居住하고는 있었으나, 특히 都市 北部와 西部에 集中 分布하고 있었으며, 都市 南部의 新興住居地域에는 그 分布가 미미하였다. 韓末부터 서울에 移住하기 시작했던 支配民族인 日本人 역시 서울 全地域에 分散되어 居住하고는 있었으나 都市 南部의 新興 商業地域 및 住居地域에 集中 居住하였다. 中國人은 都市內 넓은 지역에 分散되어 居住하였으나 西小門町, 太平通 2丁目, 長谷川町에 제 1의 集團居住地가 이루어졌으며 觀水洞에 제 2의 居住핵이 발달하였다. 外國人의 경우는 그 수가 극히 적어 뚜렷한 密集居住의 형태를 말할 수는 없으나 일부지역에 集中居住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結論的으로 1935년의 서울은 民族에 따른 居住地 分化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居住人數가 극히 작았던 外國人은 都市의 中央部에 대체로 集中 分布하였다. 男性의 數가 절대적으로 많았던 中國人은 商街 주변지역에 中國人村을 형성하며 集中 居住하였다. 都市居住人의 兩大 構成員이었던 韓國人과 日本人은 都市를 兩分하여 居住하였다. 즉 都市 北部와 西部는 韓國人에 의해, 都市 南部는 日本人에 의해 주된 居住地로 利用되어 전형적인 植民地 都市의 二重構造를 이루었으며 이 구조적 특색은 이후 都市發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사려된다.

Residential Segregation by Ethnic Groups in the Kyongsung-bu

Hae Un Rii*

Summary

Many Geographers have studied the city of Seoul in many ways, but have not dealt with Seoul under the Japanese rule as a major subject of research. This study is about Seoul, Kyongsung-bu, which was a city of Kyonggi-do and a central city for carrying out the colonial policy of Jap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sidential distribution by ethnic groups in Seoul under the Japanese rule.

To examine the residential segregation, four ethnic groups were chosen: the Korean, the original inhabitants in Seoul; the Japanese, the ruling ethnic group; the Chinese, who were the immigrants; the foreigner consisting mainly of missionaries. The maps represent the sex ratio by ethnic groups, the residential distribution in each *dong* by ethnic groups, and the residential distribution of each ethnic group by *dong*s. The popul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the census taken by the government in 1935. The dissimilarity index was computed for ethnic groups to determine the segregation. The spatial units measuring segregation are *dong*s.

Seoul in 1935 was a city in transition from a pre-industrial city to a modernistic city with industr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ctivities. The city was divided into several regions by characteristics such as business, commercial, industrial, residential, and military areas. The residential area also was divided into two regions: the traditional area in the nothern part of the city; and the newly developed area by the Japanese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ity.

In 1935 railroads and buses were the ex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s, and electric street car railway was the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The electric street cars started operation in 1899 and were the only internal public transportation mode to carry people on a regular schedule in Seoul.

A sex ratio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groups living in Seoul. As a whole, Seoul in 1935 was a male dominated city with a female ratio of 95.5 to male of 100.0. The sex ratios of the Koreans and Japanese were similar to that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as a whole. This means that they were equally distributed although they showed different ratio patterns in some areas. In the case of the Chinese, males dominated over females with a ratio of 15.7 to male of 100.0. Moreover, Chinese men lived without women in around one-third of their residential regions. The sex ratio of foreigners was 113.7, representing a female dominant ethnic group.

According to the reconstruction maps of residential patterns and the dissimilarity indices, there was distinctive residential segragation among ethnic groups. The Koreans lived in all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29, pp. 20-36, 1984.

* Assistant Professor (Ph.D.), Dongguk University.

197 *dongs* in Seoul, but they aggregated densely in the northern and western parts of the city. The Japanese we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city except for three *dongs* with the residential clustering in the southern part of Seoul. The Chinese concentrated in their two core residential areas near the central part of the city, even though they were scattered in 142 *dongs*. The foreigners lived in 47 *dongs* showing a residential clustering in some regions. They were the most segregated ethnic group among people living in Seoul.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mong the residents of the city was too small to make an impact on the residential pattern of Seoul.

In conclusion, the city was largely divided into two regions by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ethnic groups such as the Korean dominant residential areas in the northern and western parts of Seoul and the dominant Japanese residential area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ity. Therefore, Seoul in 1935, revealed a dual structure representing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a colonial city.